

동물 개체수 줄여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 당장 시행해야



전문가들은 동물을 위한 동물원이 되기 위해선 운영주체와 관람객들이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대만 류푸촌 흰코뿔소 사파리 모습. /이종행기자 golee@

/이종행기자 golee@



슬픈 동물원

<7> 우치동물원을 동물복지 1번지로

대만 동물원 사육사와 국내 동물원 사육사 및 동물보호단체 등은 광주 우치동물원이 국내 최고의 동물 복지 1번지로 거듭나기 위해선 동물 복지의 개념이 결합된 동물원으로 시설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는 "동물원 조건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줄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체수를 조절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 "동물원의 비전에 맞게 장기적으로 전시하기 어려운 코끼리·북극곰 등은 더 이상의 개체수를 늘리지 않고 향후 전시하지 않는 방법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지적했다.

우치동물원 측이 현재 보유한 동물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면 개·말·염소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체수는 과감히 줄인 뒤 각 동물의 특성에 맞는 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예산을 집중·편성하는 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우치동물원에는 20종(85칸)의 동물사에 포유류 66종 272마리, 조류 47종 316마리, 파충류 25종 65마리가 사육되고 있으며 열대식물원·보조식물원·표본전시실 등도 있다.

대만 신주현(新竹縣) 류푸촌(六福村·육복촌) 동물원 사육사 장첸양씨는 "현대 동물원의 가장 기본 역할인 종 보전활동에 무게를 두고 동물원 시설이 좀 더 장기적 안목에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집계회에 근거해 동물을 과학적으로 관리한다면 동물 복지와 안전은 물론 어린 관람객들의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전시 위주의 동물원은 가능한 많은 종류의 동물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지만 종 보전 활동에 목적을 둔 동물원이라면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보전에 필요한 동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 보전 및 환경교육 센터로 철저히 변신한

동물원일수록 더 많은 관람객이 모인다는 사실을 구미 선진국은 보여준다. 시민의 윤리의식이 높아질수록 철창 형태의 동물원에 자신의 자녀를 데려가는 것을 점점 더 불편해하기 때문이다.

이용요금을 인상하는 대신 이 비용을 재투자해 우치동물원만의 특성화된 동물원을 만들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현재 우치동물원 이용요금은 성인 어른 기준 1500원·청소년 1000원·어린이 700원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유료입장객 수는 69만1010명으로 수입은 8억2400만 원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24만6010명(수입 2억 8600만 원) ▲2012년 22만4926명(수입 2억 6900만 원) ▲지난해 22만74명(수입 2억 6900만 원) 등이다.

유료 관람객 수와 수입이 해마다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차라리 이용 요금을 인상, 우치동물원만의 특색 있는 시설을 갖추고 스타 동물을 만드는 등 관람객들이 꾸준히 찾는 동물

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치동물원의 한해 예산은 평균 30억 원.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시설 개보수비용은 대략 2~3억 원 안팎이라는 게 우치동물원 측의 설명이다.

대만 신주현 녹색세계농원(Green World Ecological Farm) 신차오 이사장은 "한 해 개보수비만 10억 원 이상 된다. 타이베이 시립동물원과 개체 수나 규모 면에선 비교할 수 없지만 조류 우리는 어느 동물원과 견줘도 뒤떨어지지 않는다"며 "조류 종만 200종류 보유하고 있는데, 동물원 입장 수입의 상당부분을 조류 우리에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대만 류푸촌 동물원 하면 멸종위기종인 흰코뿔소(White Rhinoceros)가, 우리 동물원을 찾는 대다수 관람객들은 금강앵무·토코투칸 등 조류를 보러 온다"며 "이용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더라도 동물원의 시설이 개선되고 스타 동물이 있다면 관람객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 타이페이 시립동물원 진스첸 원장은 "운영 주체와 관람객들의 의식을 바꾸기 위한 생명윤리교육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의 동물원들이 20세기 이후 '동물을 위한, 동물에 의한, 동물원으로' 씬없이 거듭나고 있는데, 이 같은 변화의 밑바탕엔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동물은 동물일 뿐이라는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산·인력이 많은 최고의 동물원일지라도 그곳은 동물들에게 '슬픈 동물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끝>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양세열기자 hot@kwangju.co.kr

스타 동물 키워 특성화된 동물원으로

전시 위주 아닌 종 보전에 중점두고

환경교육센터로 변신 도모해야



대만 류푸촌 반달가슴곰 사파리 전경. 동물복지는 생명윤리에 대한 의식전환에서부터 시작된다.

기고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제언



'동물을 위한 행동'은 2012년부터 전국의 동물원을 현장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 국내 동물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서울대공원 동물원 등 일부 전시관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동물원의 시설개선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동물원은 장경원 개장 이후 1970년대를 전후해 대부분의 동물원들이 건립됐다. 그 모델은 유럽이 지난 1950년대에 지은 것과 유사한 시설이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 동물원은 동물복지보단 운영 관리의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딱딱한 콘크리트 재질로 된 전시장바닥은 동물이 자유롭고 편하게 활동하기 어렵게 만들었고 좁고 단조로운 공간은 동물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무료하게 보낼 수밖에 없게 했다.

무엇보다 관람객들에게 보여 지는 것이 동물들의 고유의 가치가 되다보니 동물과 관람객 사이의 거리가 좁아 장난으로 먹이를 던져주기 쉬운 구조로 돼 있다. 동물들에게 과자를 던져주는 관람객들은 많았고 성수기 이후 동물들이 만성 설사와 질병으로 죽는 경우가 허다한 이유는 바로 그것에서 기인한다.

코끼리·영장류처럼 넓은 공간에서 살던 동물은 동물원에서 사람들에게 사육되고 있는 상태에서 역시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한정된 공간만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동물원에서는 정형행동이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 동물원은 법률상 공원의 일부이거나 박물관으로 규정돼 있다. 동물원 동물도 생명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야생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동물로 최소한의 복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갖추고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러나 법률적 기초를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각 동물원이 자기 나름의 운영원칙과 비전을 세우는 일이다.

이제 동물의 복지에 대해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동물원 동물의 복지 조건이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내 기후와 재장조건, 사회여건에 맞는 동물원 운영의 원칙이 조정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해 열대지방 동물들에게는 겨울이, 극지방 동물들에게는 여름이 감당하기 힘든 계절이다.

그러나 이들이 실내에서 지내야 하는 실내전시관의 조건은 현재 매우 열악하다. 동물원 조건을 획기적으로 전환시켜 줄 만한 재정적 뒷받침이 현재로서 부족하다면 개체수를 조절해야 한다.

이 같이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과학적 사실에서 근거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이다.

동물원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태어나 처음으로 야생동물을 접하는 공간이다. 동물원에서 무료로 보내는 동물들을 보면서 생명의 존엄성을 배우지 못할 것은 당연하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아름다움과 동물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동물원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동물을 위한 행동'은 지난 2012년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동물원 동물복지와 동물쇼 반대 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보약, 홍삼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성역

광운간도로

북고당 한약방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120,000원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에금주 박주환